


국내외 펀드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전망

2021. 02. 04


- 국내외 펀드시장 모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대체투자 펀드 등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해 온 가운데 최근에는 ETF, 연금, ESG 등이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
- 2021년 국내 펀드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① 기관투자자 영향력 확대, ② 기관투자자의 채권형 펀드·일임 수요 지속, ③ 대체투자 펀드시장 성장 지속, ④ ETF의 높은 성장, ⑤ 노후준비 펀드에 대한 수요 증가, ⑥ ESG 투자 규모 확대 등
 - [① 기관투자자 영향력 확대] 간접보다는 직접투자에 대한 개인의 높은 선호도로 향후 펀드시장에서 개인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② 기관투자자의 채권형 펀드·일임 수요 지속] 채권형 상품(펀드·일임)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자산 운용 니즈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를 중심으로 수요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
 - [③ 대체투자 펀드시장 성장 지속] 2020년 환경 악화로 대체투자 펀드 성장률은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으나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높은 수익 기대감으로 관련 펀드 시장은 2021년 이후 높은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
 - [④ ETF의 높은 성장] 공모펀드시장은 위축되고 있으나 ETF 상품 고유의 장점, 우호적인 금융시장 환경, 양호한 수익률 등으로 ETF시장의 높은 성장세 전망
 - [⑤ 노후준비 펀드에 대한 수요 증가] 연금펀드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제한적이거나 향후 저금리, 인구 고령화 등으로 펀드시장의 주요 상품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
 - [⑥ ESG 투자 규모 확대] ESG펀드가 국내 펀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나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투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작성자: 시너지연구실 이새롬 수석연구원 (02-2173-0567)

책임자: 시너지연구실 김진선 실장 (02-2173-0504)



목 차



1. 국내 펀드시장 동향	1
2. 글로벌 펀드시장 동향	2
3. 2021년 국내 펀드시장의 6대 트렌드	4
[붙임] 국내 자산운용시장 주요 현황	11

1. 국내 펀드시장 동향

■ 2020년 국내 펀드시장은 코로나19 사태,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성장세 둔화

- 2020년 자산운용시장(공·사모펀드와 투자일임) 성장률은 2019년 대비 6.0%p 하락한 8.6%(1,330.5조원)¹⁾
- 공·사모 펀드시장은 전년대비 8.9% 성장한 720.6조원을 기록했으나, 이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로 MMF 등 단기금융 상품으로 유입된 것으로 단기금융을 제외한 성장률은 전년대비 14.8%p 낮은 6.9%
 - 증권형 펀드 운용자산은 전년대비 5.5% 성장하는데 그쳤으나, 단기금융은 19.6% 성장

■ 2015~2020년 동안의 펀드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대체투자 펀드 등이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견인해 오면서 최근에는 ETF,연금 등이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모집방법]** 2000년대 중반 개인 대상 주식형 펀드 열풍으로 자산운용시장은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2010년대 이후 주식형 펀드 수익률 하락, 저비용 상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으로 공모펀드시장은 위축되고 사모펀드가 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
 - 사모펀드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3%에서 2020년 33.5%로 상승하였으며, 동 기간 공모펀드 비중은 24.5%에서 20.6%로 하락
 - * 투자일임의 경우 지속적인 자산운용 니즈를 보유한 보험사 등의 기관 중심의 시장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 **[투자자]** 개인의 펀드 투자가 감소하면서 펀드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영향력 증가
 -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 문턱이 낮아지면서 2018~19년 사모펀드 시장에서 개인 비중은 상승했으나, 사모펀드 사태로 개인 비중이 하락하면서 기관 중심의 성장 흐름은 더욱 강화
 - * 2020년 펀드시장에서 개인 비중은 2015년 대비 12.8%p 감소한 15.6%²⁾
- **[자산 유형]** 수익성이 높은 대체투자에 대한 기관들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대체투자 펀드가 공·사모 펀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9.6%에서 2020년 36.0%로 증가한 반면, 동기간 증권형 펀드 비중은 50.6%에서 39.5%로 하락

1) 불임 참고
2) 11월말 기준

- 2020년 주가 상승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는 39.0%의 높은 수익률(1년)³⁾을 기록했으나, 간접보다는 직접투자에 대한 개인의 높은 선호도로 국내 주식형펀드(공·사모) 설정액은 전년대비 17.7%(12.0조원 유출) 감소한 56.6조원

* KOSPI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은 2019년 47.6%에서 2020년 65.9%로 증가

- [투자전략] ETF, 연금펀드 등 투자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시장이 높은 성장을 지속하면서 공모펀드 시장의 성장 하락폭을 제한

- 자산운용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향후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주요 트렌드이며, 2021년에는 경제·금융 환경 또한 개선되면서 운용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12.3% 증가한 1,494.2조원으로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⁴⁾

2. 글로벌 펀드시장 동향

- 글로벌 펀드시장의 경우 2020년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2015년 이후 연평균 7.4%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개인 보다는 기관 주도하에 대체투자펀드, ETF, ESG 등이 성장을 견인

-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3% 성장하는데 그친 112.3조달러⁵⁾

- 아직 전통적인 증권형 펀드가 글로벌 펀드시장의 대표 상품이나 ETF, ESG, 대체투자 등이 2015년 이후 높은 성장세를 지속

- 글로벌 ETF 규모는 전년대비 23.9%, 2015년 이후 연평균 20.8% 성장한 7.4조달러⁶⁾

- 2015년 11.4%였던 대체투자펀드 비중은 2020년 12.1%로 확대

* 대체투자 펀드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0%, 2015년 이후 연평균 8.6% 성장해 시장 전체 성장률을 상회

-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기관⁷⁾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1.9%에서 2020년 35.8%로 확대되어 기관투자자의 영향력 더욱 확대

- 인구 고령화로 글로벌 연기금 규모가 2015년 이후 6.8% 성장한 49.8조달러로 연기금이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의 주요 플레이어

3) 기준일 2021.01.04. FnGuide “2020년 12월 펀드평가보고” 인용

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중장기 거시·금융시장과 금융산업 업권별 전망” (2020.08.20.)

5) PwC, “Asset and Wealth Management Revolution: The Power to Shape the Future”, 2020

6) 한국거래소의 2019년과 2020년 ETF시장 동향 분석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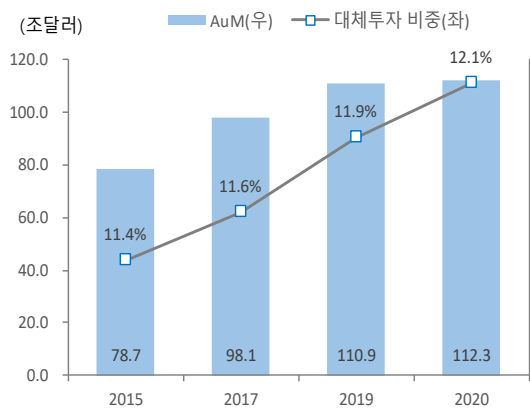
7) 기관투자자와 같은 막대한 자금을 사모펀드로 운용하는 패밀리오피스 등의 초부유층 개인의 자금을 포함할 경우 기관 비중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

- 특히 2020년은 ESG관련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한해로 ESG 투자 규모는 2016년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한 40.5조달러
 - 사회책임, 환경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ESG를 테마로 하는 상품 출시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자산운용사의 운용 프로세스 전반에 ESG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ESG 활용 범위 확대

■ 2020년 글로벌 펀드시장에서 나타난 변화 흐름은 2021년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2025년 운용자산 규모는 연평균 4.4% 성장한 140조달러에 달할 전망(Pw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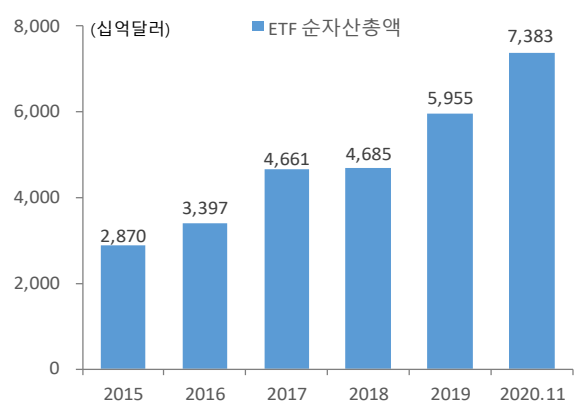
- 향후 ETF, ESG, 대체투자 등으로 자금이 더욱 유입되면서 해당 상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5년 대체투자펀드 시장 규모는 연평균 6.8% 성장한 18.9조달러, ETF는 28.0% 성장한 25.0조달러에 이를 전망
 - ESG의 경우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뮤추얼펀드 운용자산 중 ESG 요소를 반영한 비중이 2025년 약 40~50%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제기
- 투자자 측면에서는 개인보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분석되며, 개인의 경우 연기금을 통한 투자방식으로 시장에 주로 참여할 가능성
 - * 2025년 글로벌 연기금 규모는 연평균 4.6% 성장한 62.5조달러 전망
-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들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국내 시장도 글로벌 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글로벌 자산운용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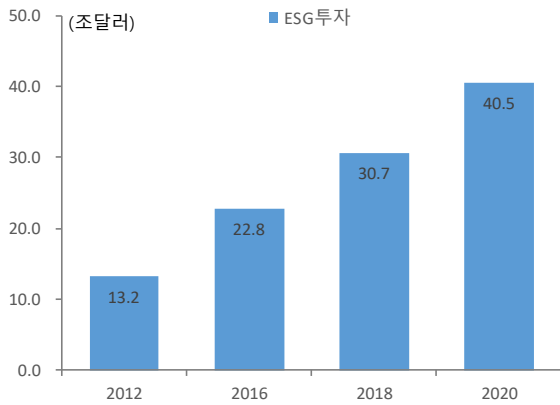
자료: PwC

글로벌 ETF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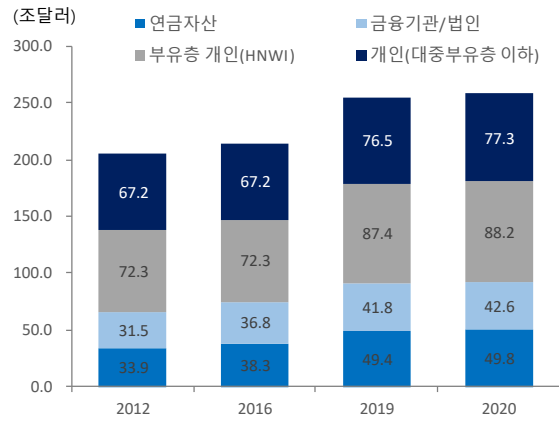
자료: KRX

글로벌 ESG투자 규모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Pionline, GSIA

투자자 유형별 자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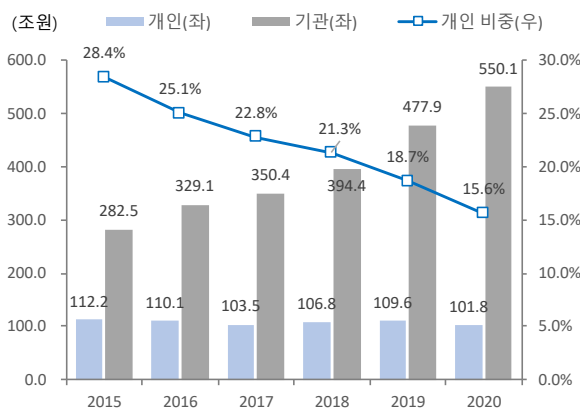
주: Client Assets 기준
자료: PwC

3. 2021년 국내 펀드시장의 6대 트렌드

-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펀드시장의 구조적 변화 추세와 금융사회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 국내 펀드시장의 주요 트렌드를 ① 기관투자자 영향력 확대, ② 기관투자자의 채권형 펀드·일임 수요 지속, ③ 대체투자 펀드시장 성장 지속, ④ ETF의 높은 성장, ⑤ 노후준비 펀드에 대한 수요 증가, ⑥ ESG 투자 규모 확대 등으로 선정
- [① 기관투자자 영향력 확대] 간접보다는 직접투자에 대한 개인의 높은 선호도로 향후 펀드시장에서 개인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보험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경우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펀드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를 보유하고 있으나, 개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높고 환금성이 낮은 펀드보다는 직접투자를 선호
 -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사모펀드와 투자일임이 성장을 주도
 - 모집단위별 2015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사모펀드 16.9%, 공모펀드 5.1%, 투자일임 6.0%
 - * 2020년은 이례적으로 공모펀드시장 성장률(13.4% YoY)이 사모(6.3%)와 투자일임(8.3%)에 비해 높았으나, 이는 단기금융 상품으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단기금융을 제외한 공모펀드 성장률은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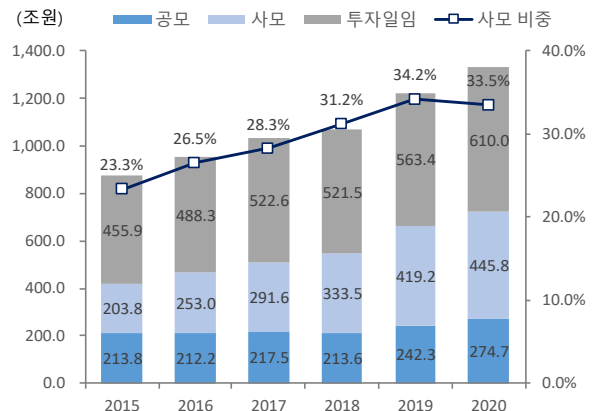
- 정부가 전문투자자 요건(투자금 5억원 → 5천만원),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5억원 → 1억원) 등의 기준을 낮추면서 2018년 사모펀드 시장에서 개인 비중은 6.9%까지 증가했으나 사모펀드 사태, 주식투자 열풍 등으로 2020년⁸⁾ 개인의 비중은 4.2%로 하락
 - * 공모펀드시장에서도 2020년 개인투자자 비중은 2015년(51.0%)대비 13.2%p 낮은 37.8%에 불과해 공모펀드에서도 기관 비중이 높음
- 2021년에도 개인의 주식투자 열풍이 지속되면서 펀드시장에서 기관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기관이 선호하는 사모펀드는 높은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사모펀드 규제가 강화(최소 투자금액 3억원으로 상향 등)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접근이 어려워진 만큼 2021년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규모는 더욱 감소할 가능성

투자자유형별 공·사모펀드 판매잔고



자료: 금융투자협회

모집단위별 운용자산



자료: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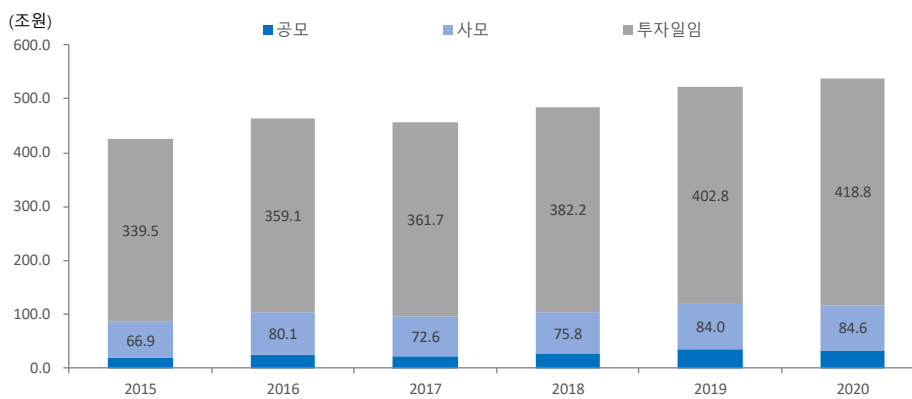
■ [② 기관투자자의 채권형 펀드·일임 수요 지속 채권형 상품(펀드·일임)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자산운용 니즈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를 중심으로 수요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지속적인 자산운용 니즈를 지닌 연기금, 보험사 등의 기관 자금이 채권형 상품으로 유입되면서 2020년 채권형 상품(공·사모펀드와 일임) 규모는 2015년 이후 연평균 4.8% 성장한 536.7조원
 - 특히 기관투자자 시장인 투자일임의 경우 자산 중 약 70%가 채권형 상품으로 채권형 일임 규모는 2015년 이후 연평균 4.3%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유지(2020년 규모 418.8조원)

8) 11월말 기준

- 장기적인 투자를 실행하고, 신규 자금 유입으로 운용 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관투자자의 특성상 채권 투자를 일정 비중 유지해야 하는 만큼 향후에도 채권형 펀드·일임에 대한 기관들의 수요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
- 특히 2023년 보험사들이 새로운 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자산 듀레이션과 부채 듀레이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채권 보유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채권형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

모집단위별 채권형 펀드·일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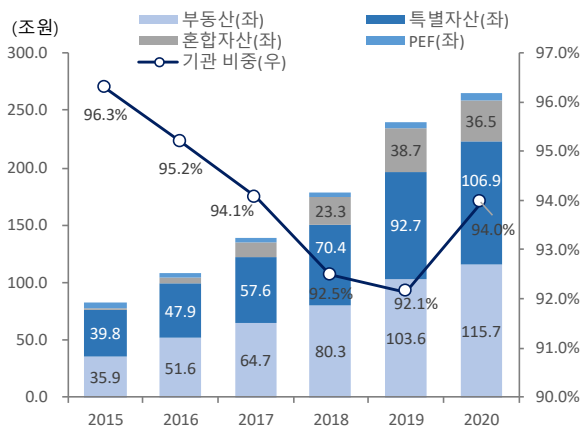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 [③ 대체투자 펀드 시장 성장 지속] 2020년 환경 악화로 대체투자 펀드 성장률은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으나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높은 수익 기대감으로 관련 펀드 시장은 2021년 이후 높은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

- 대체투자 펀드시장 규모는 265.2조원으로 2015년 이후 연평균 26.2%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해외펀드 신규 설정의 어려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10.6%의 성장률 기록
 - 전체 자산운용시장(공·사모펀드와 투자일임)에서 대체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5%에서 2020년 19.9%로 증가
- 대체투자 펀드 중에서는 부동산 펀드의 비중이 2020년 43.6%로 가장 높으며, 지역별로는 국내보다 해외 부동산에 자금이 더 많이 집중되어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예외적으로 국내 부동산 펀드 성장률(14.9%)이 해외펀드 성장률(9.0%)을 상회했으나, 2019년까지 해외 부동산 펀드의 연평균 성장률은 43.6%로 국내(20.5%)의 2배 이상

- * 대체투자 펀드 시장에서 4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 2015년 이후 연평균 21.8% 성장한 106.9조원
- 투자자별로는 해외 부동산 펀드 등에 대한 높은 수익 기대감으로 개인 비중이 2019년 7.9%까지 상승했으나, 2020년 6.0%로 하락하면서 기관 중심의 구조 고착화
- 2021년 금융·경제 환경여건이 개선되면서 양호한 수익이 기대되는 대체투자 펀드에 대한 수요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인프라 등 정부의 뉴딜 정책과 관련한 펀드로의 자금유입 또한 대체투자 펀드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2017~19년(3개년)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수익률은 8.8%로 전체 수익률 5.9%를 상회하였으며, 국민연금은 현재(2020.10월 기준) 11.7%인 대체투자를 비중을 2025년 15%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
 -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0조원의 뉴딜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10~30% 정도는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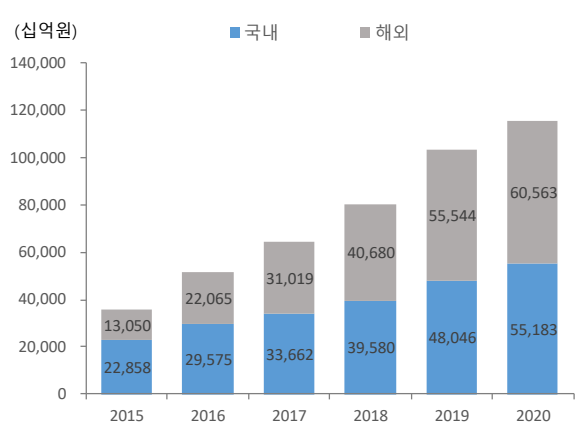
대체투자펀드 자산유형별 규모



주: 기관투자자 비중은 판매잔고(2020년은 11월말 기준), 펀드는 연말 NAV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투자지역별 부동산펀드 규모



자료: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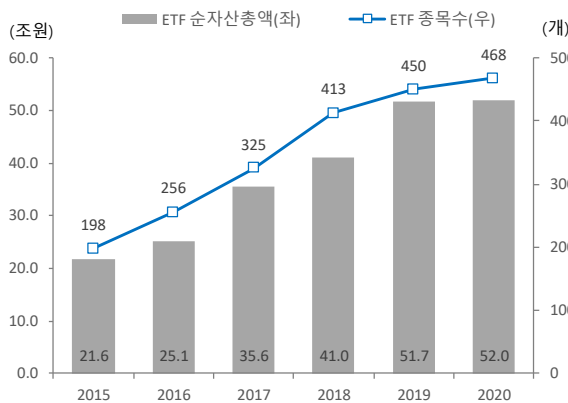
■ [④ ETF 시장의 높은 성장] 공모펀드시장은 위축되고 있으나 ETF 상품 고유의 장점, 우호적인 금융시장 환경, 양호한 수익률 등으로 ETF시장의 높은 성장 기대

- 개인의 직접투자 확대, 주가 상승 등의 환경 변화와 더불어 높은 환금성, 낮은 수수료율, 분산투자 등 ETF가 지닌 장점들로 2020년 ETF시장은 2015년 이후 연평균 19.2% 성장한 52.0조원

* 2020년 ETF 일평균 거래대금은 3.8조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188.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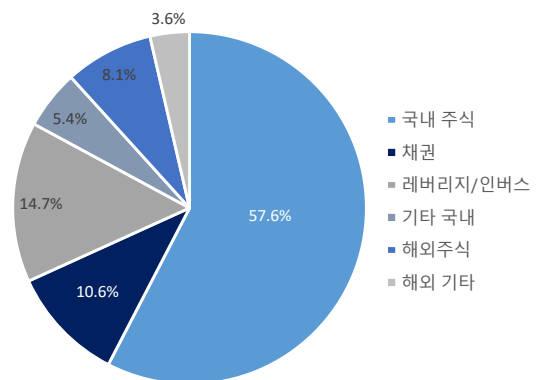
- 특히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인 헬스케어, 언택트, ESG, 뉴딜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면서 투자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ETF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⁹⁾
 -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비중이 57.6%로 높으나, 국내 주가지수 외에도 자산유형이 다변화되면서 국내 주식형 상품 편중 현상 완화
 -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ETF 등 투자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유형 상품도 확충
 - * ETF 종목 수도 2015년 198개에서 2020년 468개로 성장
- 일반 펀드와 달리 ETF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전년대비 4.4%p 증가한 43.0%(기관 19.2%, 외국인 37.8%)로 개인 중심의 시장
- ETF 고유의 장점, 상품 종류 다각화 등을 비롯해 ETF로 대표되는 패시브 상품의 우수한 수익률은 개인의 ETF 투자 메리트를 더욱 상승시켜 2021년 이후에도 자금 유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내 인덱스 주식형 펀드 수익률(1년)은 액티브 펀드 수익률(30.8%) 대비 13.0%p 높은 43.8%¹⁰⁾

국내 ETF 시장 규모



자료: 한국거래소

2020년 ETF 자산유형별 비중



자료: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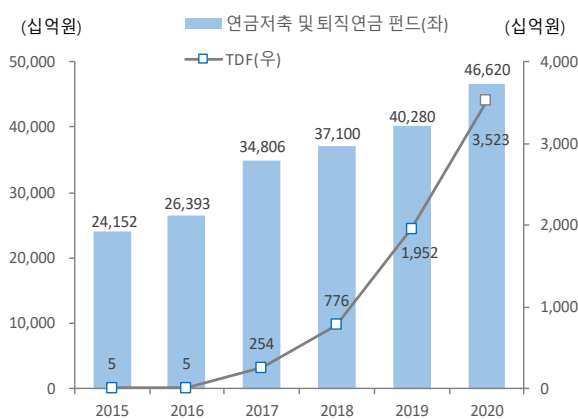
- [⑤ 노후준비 펀드에 대한 수요 증가] 연금펀드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제한적이나 향후 저금리, 인구 고령화 등으로 펀드시장의 주요 상품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

9) 한국거래소, “2020년 ETF 시장 동향 및 주요 특징 분석” (2021.01.07.) 인용

10) FnGuide “2020년 12월 펀드평가 보고” (기준일은 2021년 1월 4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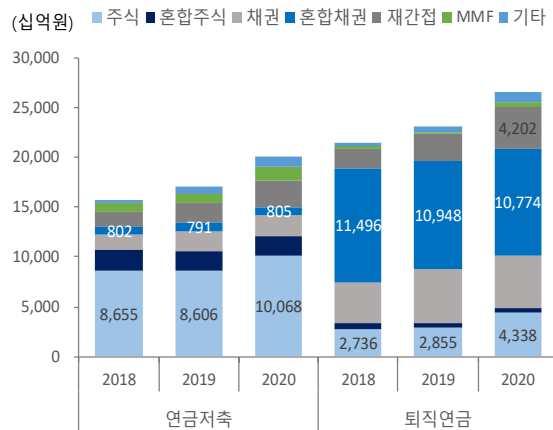
- 전체 사적연금(퇴직연금과 연금저축)시장에서 펀드로 운용되는 자산 비중은 약 10%¹¹⁾에 불과하나, 연금펀드 규모는 2015년 이후 연평균 14.1%, 전년대비 15.7%의 높은 성장을 지속
 - TDF(Target Date Fund)¹²⁾ 출시 확대, 저금리로 인한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 하락, 주가 상승 등으로 펀드로 운용되는 사적연금 자산 증가
 - 특히 은퇴시점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는 TDF는 개인의 노후 준비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표 상품으로 인식되면서 2015년 47억원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가 2020년 3.5조원으로 성장
- 자산유형별로는 주식·혼합주식형 펀드 투자 규모가 2018년 이후 연평균 9.9%, 채권형·혼합채권형이 2.7% 증가해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소폭 완화
 - 특히 퇴직연금 펀드에서 70%대를 차지하던 채권·혼합주식형 펀드 비중이 2020년 60.3%로 하락하고, 대신 주식·혼합주식형 펀드 비중이 15.7%에서 18.2%로 상승
- 인구 감소 본격화, 정부의 연금 활성화 정책, 금융회사들의 상품 출시 확대 등으로 연금펀드 시장의 높은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 정부는 2022년까지 50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개인의 노후준비를 촉진

연금펀드시장 규모 추이



주: 연금저축 펀드와 퇴직연금 펀드 순자산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2020년 연금펀드 자산유형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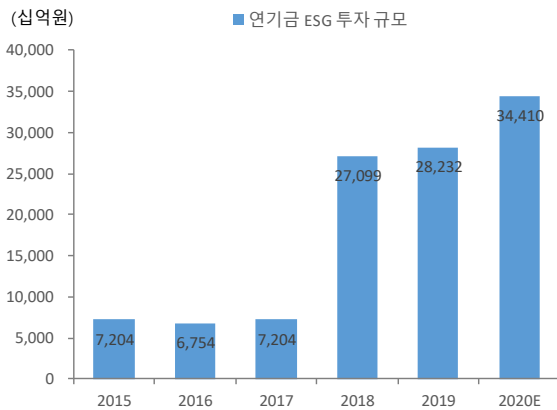
주: 연금저축 펀드와 퇴직연금 펀드 순자산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11) 2019년 기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적립금 규모는 365조원, 이 중 38조원이 펀드로 운용
 12) 은퇴시점(타겟데이트)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펀드

■ [⑥ ESG 투자 규모 확대 ESG펀드가 국내 펀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
하나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투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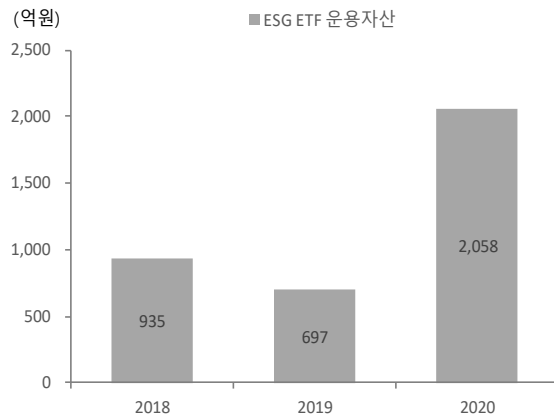
- 국내 ESG 투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연기금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연기금의 ESG 관련 투자 규모는 약 28조원을 기록한 후 2020년에는 34조원으로 추산(2015년 이후 연평균 37% 성장)
 - 2020년 신규로 11개의 ESG 펀드가 신설되면서 현재 약 42개의 펀드가 운용 중¹³⁾
 - ESG ETF 운용자산 규모는 2019년 697억원에서 2020년 2,058억원으로 약 3배로 증가
- ESG 펀드가 공모펀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2%에 불과하나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국민연금의 ESG 투자 비중 확대 계획 등으로 자금유입이 확대되면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국민연금은 2022년까지 운용기금 50%에 ESG 요소를 반영할 계획(현재 약 4%)
- 또한 ESG 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ESG 펀드에 대한 투자 메리트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 2020.1~10월 42개의 ESG 평균 수익률은 12.0%로 국내 주식형 펀드 9.3%를 상회하고 6개월 수익률은 30.8%에 달함

연기금의 ESG 투자 규모



자료: 금융투자협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ESG ETF 운용자산



주: 현재 운용 중인 7개의 ESG ETF 기준¹⁴⁾
자료: 본드웹, KRX

13) 데이터는 2020년 10월 기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1년 WM 트렌드와 시사점” (2020.01.17.) 인용

14) ARIRANG ESG우수기업, FOCUS ESG리더스,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설, TIGER MSCI KOREA ESG 리더스, KBSTAR ESG사회책임투자, KODEX 200ESG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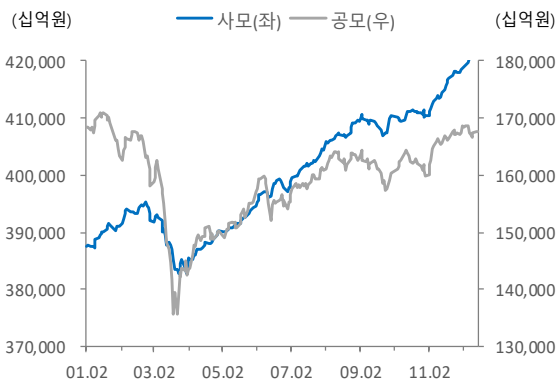
붙임

국내 자산운용시장 주요 현황

■ 2020년 국내 자산운용시장은 전년대비 8.6% 성장한 1,330.5조원을 기록했으며, 모집 유형별 비중은 공모펀드 20.6%, 사모펀드 33.5%, 투자일임 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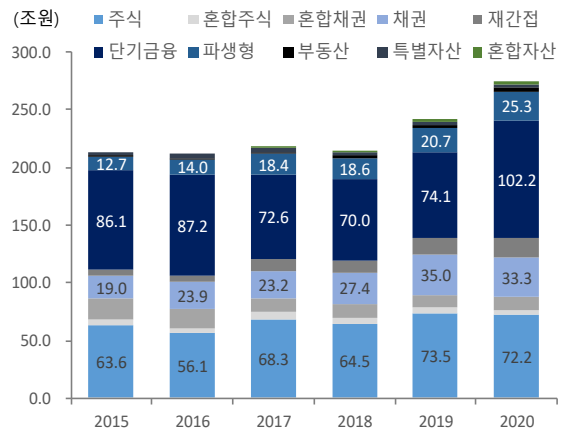
- DLF사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2020년 1분기 펀드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이 확대되었으나, 2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 수요로 자금 유입
- 2015년 이후 둔화세를 지속해 온 공모펀드의 경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MMF와 같은 단기금융 상품으로 유입되면서 전년대비 13.4%의 높은 성장률 실현
 - 증권형 공모펀드 성장률은 전년대비 0.2% 감소, 2015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4.5%에 불과

2020년 공·사모 펀드시장 추이



주: 단기금융 제외
자료: 금융투자협회

공모펀드 자산유형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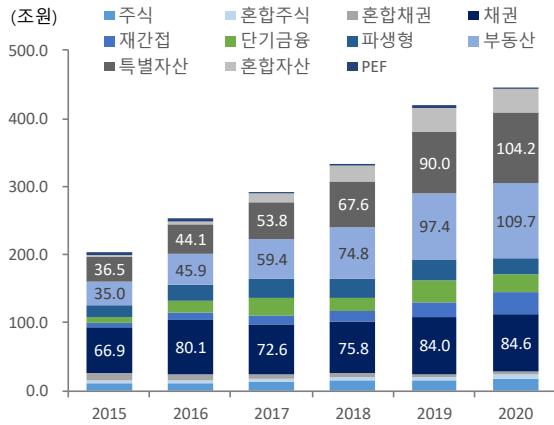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 2020년 사모펀드시장은 전년대비 6.3% 성장한 445.8조원으로 2019년 25.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성장률이 하락했으나, 2015년 이후 사모펀드 중심의 자산운용시장 성장 트렌드 유지
 - 자산유형별로는 증권형 펀드보다는 대체투자펀드가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대체투자펀드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6.4%인 반면 증권형 펀드는 7.9%
 - * 2020년 전년대비 사모 증권형 펀드 성장률은 11.6%로 이례적으로 대체투자펀드 성장률 10.9%를 상회했는데, 이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DLF 사태, 코로나19 등으로 대체투자펀드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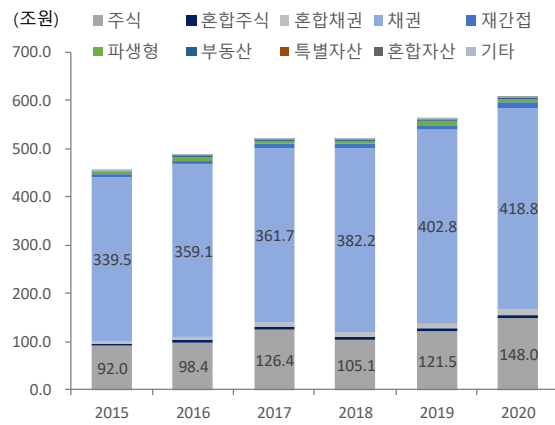
- 투자일임 규모는 전년대비 8.3% 증가한 610.0조원이며, 투자일임은 기관투자자 시장으로 채권형펀드 비중이 2015년 이후 평균 71.8%를 유지

사모펀드 자산유형별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투자일임 자산유형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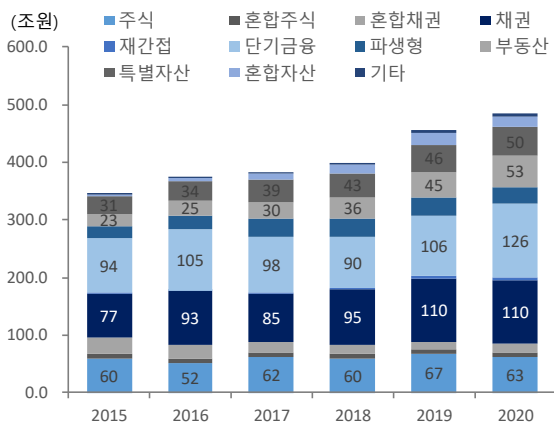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 투자지역별로 구분하면 2020년 펀드(공·사모 기준)시장에서 국내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고, 해외펀드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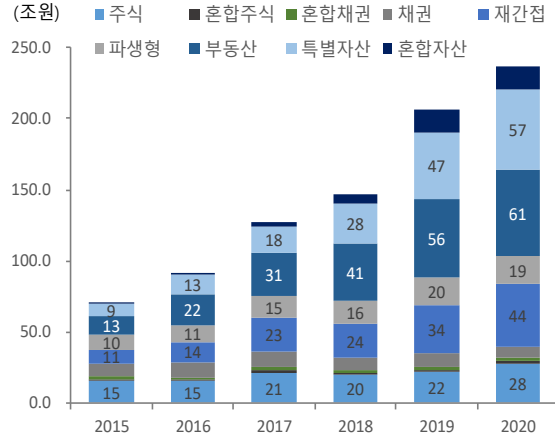
- 2020년 펀드시장에서 국내펀드 비중은 67.1%, 해외펀드는 32.9%로 국내투자 비중이 높으나, 2015년 국내 83.2%, 해외 16.8%와 비교하면 국내펀드 비중 하락
- 국내펀드 중에서는 2020년 증권형 펀드 비중이 41.6%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단기금융 26.1%, 대체투자 26.0% 순

국내 펀드 자산유형별 추이



주: 공·사모 펀드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해외 펀드 자산유형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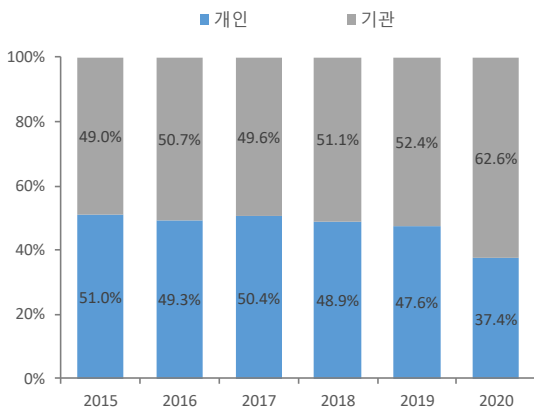
주: 공·사모 펀드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 해외펀드는 국내와 달리 대체투자펀드 비중이 56.4%로 가장 높으며, 증권형 펀드 비중은 35.4%

■ 개인투자자의 이탈이 확대되면서 펀드시장의 기관화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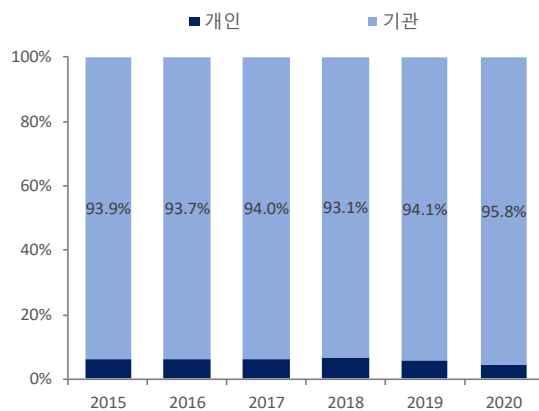
- 개인이 주요 대상인 공모펀드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에는 전년대비 10.2%p, 2015년 대비 13.6%p 감소한 37.4%
 - 공모펀드시장에서 기관 비중은 62.6%
- 기관투자자 중심(2015년 이후 기관 비중은 평균 94.1%)의 사모펀드시장의 경우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가 확대되었던 2018년 개인투자자 비중이 6.9%까지 상승했으나 2020년 개인 비중은 4.2%로 하락

공모펀드시장 개인과 기관투자자 비중



주: 1) 판매잔고 기준
2) 2020년은 11월말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시장 개인과 기관투자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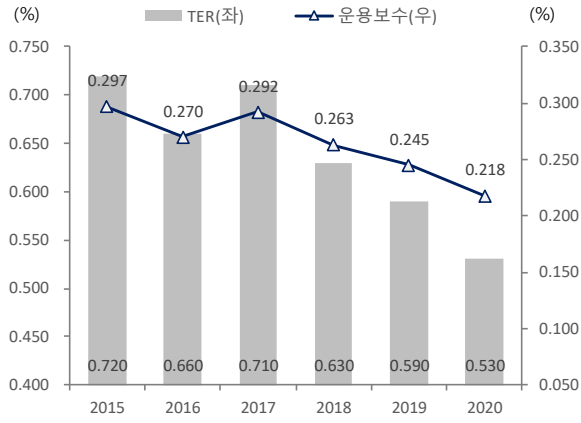


주: 1) 판매잔고 기준
2) 2020년은 11월말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 수수료가 높은 대체투자펀드 시장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식형펀드 성장 둔화, 수수료가 낮은 채권형펀드·MMF·ETF로의 자금유입 확대 등으로 펀드 수수료는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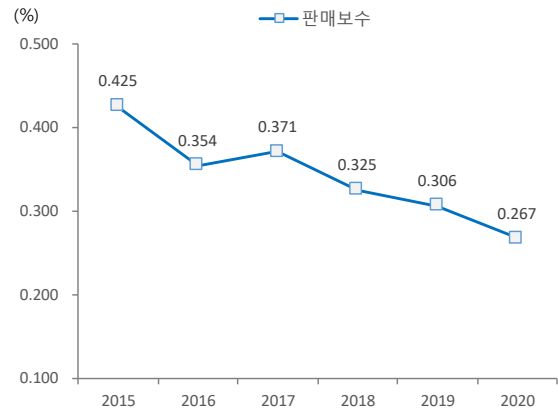
- 2020년 TER(Total-Expense-Ratio)는 2015년 대비 0.19%p 감소한 0.53%를, 운용보수는 0.08%p 하락한 0.22%
- 판매보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20년에는 전년대비 0.04%p, 2015년 대비 0.16%p 하락한 0.27%

TER 및 운용보수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판매보수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